지역 소식통

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적극 나서

정읍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매년 유실·유기되는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입양 축하선물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통해 인도적 처리(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을 줄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축하선물은 유기농 사료와 간식, 이동장(케이지), 방석 등으로 구성한 약 2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 입양 키트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동물보호소 내 유기견을 입양하는 정읍시민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개월이며, 동물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유기동물 입양 절차 진행 후 입양선물을 지원받으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세계잼버리 대비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부안군은 3월 2일 부안예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명 대상으로 2023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교육원이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안마실축제 등 행사 개최를 대비해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교육,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중독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업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 부안마실축제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다시 찾고 싶은 부안, 머물고 싶은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치매 안심 도시 구현 '박차'

정읍시, 12월까지 '치매 환자 쉼터' 운영…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 '기대'

정읍시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추정 치매 환자 수는 3,936명(중앙치매센터 2022년 말 자료)으로 60세 이상 시민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치매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 또한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치매 환자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12월까지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주 4일)까지 2개 반으로 나눠 하루 3시간씩 운영된다.

치매 환자가 가정에 머물지 않고 쉼터를 방문해 인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악화 방지와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또, 낮시간 동안 치매 환자를 보호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은 물론,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버체조와 책 놀이, 원예, 요리, 인지훈련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지 자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기억력 감퇴 수준과 우울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 정신 상태 검사와 노인 우울척도,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신체적 불편함과 교통 문제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비대면 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촌환경 개선으로 어민들과 방문객 만족도 높일 것"

심덕섭 고창군수, 상하 고리포·해리 동호항 등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을 찾아 "오래된 포구환경을 개선해 어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달 28일 현장방문지로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2곳(상하 고리포, 해리 동호항)을 찾았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항포구와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어항시설 현대화와 특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창에선 모두 5곳의 어촌뉴딜 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하면 고리포'는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노후된 포구를 정비하고, 보관창고와 친환경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심 군수는 "고리포 마을은 고창군 끝단에서 칠산바다의 명성을 유지하며 조기잡이와 고된 어업활동에 애써오셨다"며 "이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리면 동호항'은 포구 현대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센터와 전시관이 지어진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인면 일원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열려

정읍시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해 지난 1일 태인면 일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태인 청년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함께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 앞서 3·1운동 기념탑에서는 3·1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명복을 빌었다.

태인초등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으며, 손태극기 나눔 행사와 태극기 사랑 캠페인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주독립과 번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

고창군,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장

고창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50명과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하고 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대상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모범납세자 5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었고 유공납세자 5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 5명은 3월 중 직원과의 소통의 날 행사에 표창패를 전달했고, 모범납세자 50명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서와 소정의 고창사랑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창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젠 발전·번영이라는 옥동자 출산할 때"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재선 도전

오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장학수 현 조합장이 정읍산림조합장 재선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먼저 장학수 후보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4년 임기 동안 왜 그렇게 악착같이 개혁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저를 믿고 선택해 준 조합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 후보는 정읍산림조합 운영에 대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조합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4년이 경과한 현재는 회계 및 경영시스템이 투명하게 정상화되었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이 2019년부터 매년 고속 성장을 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조합 창립 후 최고흑자 2년 연속 신기록 달성이라는 쾌거를 기록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합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평했다.

"지난 4년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토대'를 다졌다면 앞으로 4년은 그 토대 위에 '건물'을 높게 올리야 할 때"라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조합원께 든든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장학수는 양심과 회계질서를 지키며 조합원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사를 밝혔다.

장학수 후보는 재선이 되면 경영수익 증대보다는 조합원 유대강화와 환원 사업에 치중할 방침이고 특정 소수가 혜택을 받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모두가 혜택을 받는 조합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장학수만이 가능한 큰 장점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특히 "정읍시 23개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잇는 '산림경영회'를 구성·운영해 정읍 전역을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산림조합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임업인 청년회를 구성해 청년들의 소모임을 장려하고 젊은 청년들이 임업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조합원의 조경수 품목 및 수량들을 전수조사하고 전산화하여 전국 산림조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경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그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형 조경수 전시판매장을 개설해 수익이 조합원과 정읍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